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의 관계

장 희 선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본 연구는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 특성을 파악하고, 각 변인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독립표본 t-검증,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윤리, 긍정적 자기이해 인성특성과 기여목표를 보이는 반면, 물질목표와 이미지목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둘째,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배려/봉사의 인성특성을 보이는 학생이 내재적 목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배려/봉사가 높고, 공감감이 낮을수록 외재적 목표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려/봉사와 긍정적 자기이해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은 낮을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은 기여목표, 관계목표를 가질수록 행복감이 높은 반면, 성장목표, 물질목표를 가질수록 행복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인성은 생애목표보다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잘 설명하는 변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 영재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동시에 영재의 품성 개발을 위한 인성 및 상담교육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주제어: 초등과학영재학생, 일반학생,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영재교육진흥법 시행이후, 영재교육에 대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지고, 영재교육이 보다 폭넓게 실시되고 있다. 영재교육 목적은 영재 학생 개발뿐 아니라 미래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갈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영재교육진흥법, 2002). 미래를 주도할 창의적이고 우수한 인재들에게 기대하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은 그 분야의 인지적 특성뿐 아니라 신념, 태도, 품성과 같은 균형있는 정서적 발달의 조화가 의미 있다 하겠다(윤미정, 2013 재인용). 현재 우리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낙관적이고 행복지수가 높아 긍정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자신의 일을 사랑하고 몰입할 수 있는 자아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행복한 영재여야 한다(한기순, 김영미, 2008). 일반적으로 영재아동은 일반아동에 비해 높은 성취를 보이며 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 온 결과, 영재교육에서는 영재아동의 능력 개발과 학문적인 동기 및 성취에 관심을 두고 영재아동의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여온 게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학교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폭력, 공격성, 우울감, 자살 등과 같은 부정적 현상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영재아동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 행복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일반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진 영재들은 심리적으로도 불안한 상태이기 쉽고, 매우 민감하고 높은 수준의 열망, 완벽주의 성향 등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하종덕, 송경애, 2004) 이들의 행복감에 대한 정서적 특성을 파악하여 다른 심리적인 구인과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기 위한 기초가 될 것이다.

초등영재교육에서 행복은 창의·인성 교육의 하위요소로 다루어져 왔다. 대체로 초등영재의 인성교육에서 영재들은 미래의 리더, 전문가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 삶의 의미를 찾아감과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긍정적 품성과 도덕적인 인격이 비범한 지적 능력과 조화를 이루게 함으로써 영재들을 완성된 인격체로 성장시켜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문용린, 김일, 2009). 훌륭한 인성이 기반이 될 때, 몰입을 통한 자신의 잠재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으며, 몰입에의 경험은 개인의 행복감을 높이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Csikszentmihalyi, 1988). 또한 나아가 외부의 문제에도 귀 기울여 보다 넓은 안목을 갖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리더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Gardner, 2008; Sawyer, 2006; Sternberg, 2005; 이경화, 태진미, 2013; 태진미, 2011). 특히, 영재의 어린 시절부터 개인의 행복과 인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은 향후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가와 리더로서 인지적 특성과 인성, 행복감 같은 정의적 특성이 균형적인 조화를 이루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재교육을 위해 초등영재아동의 인성과 행복감 특성에 대한 분석은 보다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성의 개념은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인격(character), 성격(personality), 도덕성(morality), 기질, 인품, 인간성, 사람됨, 인간의 본성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될 만큼 개념 자체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먼저,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이며, 성품은 성격과 품격이라고 볼 수 있다(민중 실용국어사전, 2010). 이근철(1996)은 인성을 좁게는 도덕성, 사회성, 정서(감정)를 의미하고, 넓게는 지·덕·체 또는 지·정·의를 모두 골고루 갖춘 전인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이근철, 1996). 한국교육학회(1998)는 인성을 ‘성격’으로 파악하며 인성(personality)을 ‘개인이 지니는 특징적인 반응양식 내지는 행동양식의 개념으로서, 환경과 상호 작용하면서 나타나는 독특하고 일관성 있으며 인지적, 정의적 감정적 행동적 양식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Likona와 Davidson(2005)은 인성을 도덕적 인성과 행동적 인성으로 구분하고, 도덕적 인성은 핵심 윤리적 가치가 될 수 있는 정직, 정의와 같은 덕목을 의미하며, 행동적 인성은 인내심, 용기와 같이 옳은 것을 행하지 않도록 유혹하는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강인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조연순(2008)은 자신의 내면적 요구와 사회 환경적 필요를 지혜롭게 잘 조화시킴으로서 세상에 유익함을 미치는 인간의 특성을 인성으로 정의하였다. 이렇게 인성의 개념은 연구자마다 서로 다른 기준으로 구성요소를 탐색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

서는 교육과학기술부(2012)가 제시한 인성교육의 3가지 차원인 도덕성, 사회성, 감성(정서성)을 인성의 구성요소로 간주하였다. 즉, 인성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다양한 세부요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면서 역동적으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성을 영재아동의 보다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요소로 간주하고 이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인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영재아동의 인성은 도덕적 영재성(moral excellence)을 성장시키기 위한 잠재능력 발현 모델로 정직, 약속, 용서 책임, 배려, 소유의 6가지 도덕덕목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되었다(문용린, 김일, 2009). 이는 영재의 인성을 6가지 가치덕목을 기반으로 한 도덕성에 국한하는 것으로 영재들의 긍정적이고 건전한 개인의 삶과 사회적 삶을 위한 도덕성, 사회성, 정서성을 포괄하는 인성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2012)에 제시한 인성교육의 3차원을 바탕으로 한 지은립, 이윤선, 도승이(2014)의 도덕성, 사회성, 정서성을 포괄하는 인성지수를 참고하였다. 먼저, 도덕성은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 필요한 핵심 가치가 무엇 인지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능력과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하위요인으로 정직, 책임, 윤리가 있다. 사회성은 다양한 상황과 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 감정, 관점을 이해하고,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유지, 소통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하위요인으로 배려/봉사와 공감으로 구성된다. 정서성은 자신의 정서적 강점, 약점, 흥미, 능력 등을 파악하여 개인적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조절 실행하는 능력을 말하는데,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자기이해와 자기조절이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영재의 특성으로 그들의 사고력, 지능, 창의성과 같은 지적 능력에서만 두각을 나타낸다고 여겨지나, 초등영재의 심리적, 도덕, 인성적 특성에 관한 선행연구로부터 실제로는 정의적 특징인 인내심, 독립심, 자발성, 민감성, 풍부한 정서, 리더십과 동시에 도덕 판단력, 정의감, 자이통제력 등의 심리적, 도덕적 측면에서도 일반 학생보다 높은 능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문용린, 김일, 2009). 그러나 지적인 능력이 우수한 영재는 일반학생보다 더 나은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지만(이현정, 2010), 일반학생보다 못한 도덕적 판단도 할 수 있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강민지, 2010; 김언주, 1998). 널리 알려진 영재아들의 정서적 특성에는 강렬함과 민감성, 광범위한 관심분야, 높은 호기심, 상상의 친구가 많음, 탁월한 유머감각, 완벽주의, 높은 동기수준, 적극성, 과제집착력, 독립성, 자기 인식, 직업에 대한 높은 열망 등이 있다(Davis & Rimm, 2005). 초등영재의 높은 지배적 역할 성향은 자기지향 완벽주의의 특성으로 대인관계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박지윤, 권치순, 2013). 이 외에 영재학생의 인성은 창의적 인성으로 주로 연구되고 있는데, 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과학적 태도, 탐구심, 호기심, 책임 등의 심리적 구인이 높게 나타났다(배성철, 2012; 김현정, 2015). 덧붙여 이들은 자유추구, 독립성, 과제집착력, 민감성, 개방성, 내성적, 지적 도전성, 상상적, 진지성, 유머감각과 같은 창의적 인성특성을 보인다고 하였다(박영태, 2002; 김명숙, 2003). 그러나 이러한 도덕 판단과 정의적 특성들은 정의로움, 높은 배려심, 책임감, 정직함 등의 가치덕목을 포함하는 '도덕적인 인성'과는 차이가 있다. 선행연구를 정리하자면, 영재를 대상으로 인성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창의적 인성에 초점을 맞추거나 도덕성의 도덕판단력과 같은 개인

적 심리구인요소의 일부분만을 다루어왔다. 따라서 영재의 인성은 개인적 심리 특성에 대한 연구에만 치우쳐 사회성과 정서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다루어지지 못한 한계가 있다.

영재학생들의 인성특성이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알며 자신을 믿고 즐겁게 미소 지을 수 있고 일에 몰입한다거나(Seligman, Steen, Park, & Peterson, 2005), 의도적인 활동에 주안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몰입과 노력을 통해 이들의 행복의 수준은 향상될 수 있다는 주장이 폭넓게 수용되고 있다(Lyubomirsky, 2007; Martin, 2005). 이렇게 행복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행복(happiness), 안녕감(well-being), 긍정심리학(positive psychology), 삶의 질(quality of life), 만족감(satisfaction) 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김종백, 김태은, 2008). 간단하게 정의하자면, 행복감이란 주관적인 삶의 질(Burckhardt, 1985), 주관적 안녕감(Diener, Suh, Lucas, & Smith, 1999)이라 할 수도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에서 안녕감이라고 하고, 인지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생활에 대한 삶의 만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긍정심리학에서의 행복의 개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첫째, 쾌락주의적 행복과 주관적 안녕으로서,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를 구성요소로 보았다. 둘째, “지혜, 인간애, 용기, 절제, 정의, 초월” 등 6가지 덕목(Peterson & Seligman, 2004)을 통한 행복과 “환경의 통제, 타인과의 긍정적 인간관계, 자율성, 개인적 성장, 인생의 목적, 자기수용” 등의 6가지 요소로 구성된 심리적 안녕(Riff, 1989)을 제시하였다. 셋째, Seligman(2011)은 행복을 대체하는 새로운 개념인 웰빙(well-being)을 번성의 개념으로 보고 “긍정적 정서, 몰입, 참여, 긍정적 관계, 삶의 의미, 성취”를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다(김미숙, 김종민, 2013). 청소년의 행복을 구성하는 개념을 ‘성취, 관계, 삶의 만족, 삶의 의미가치, 초월자 수용’의 5개의 하위 요인(최순중, 현정수, 2011)으로 설명하거나, 한국 청소년의 행복이 광범위한 의미의 주관적 웰빙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김신영, 2007).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영재학생의 행복감은 일상생활 속에서 부딪치는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개인의 주관적인 정서경험(Ryan & Deci, 2001)의 인지적 평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는 인지적 측면에서 행복은 개인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 자신의 삶을 전반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경험하는 정서적 상태라 할 수 있다(Shin & Johnson, 1978). 이를 바탕으로 영재학생이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 또는 조건에는 어떠한 심리적 구인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수준과 정도는 얼마나 필요로 하고 있고 또한 현재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행복 증진에 필수적이다.

행복에 관련된 심리적 변인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우선 행복감이라는 정서는 연령 변화에 안정적으로 나타났다(전미경, 장재숙, 2009; Heady, Veenhovem, & Wearing, 1991). 아동의 행복은 성인기의 행복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초등영재학생의 행복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행복수준을 보여주며, 인터넷 중독, 신체활동 부족, 정신건강 등의 위험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지금의 학교 교육과 가정교육 등이 행복감 발달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이기범, 2009) 이러한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의 아동은 학업 성취에 대한 높은 기대감으로 인한 과도한 학습, 사교육 등으로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이규순, 2000; 임자성,

채규만, 2003). 과도한 학습과 사교육에의 노출은 아동으로 하여금 행복감을 덜 느끼게 하고 있어(전미경, 장재숙, 2009) 학업의 중압감이 증가하는 연령이 올라갈수록 낮은 행복감을 보이고 있었다(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

또한, 아동이 느끼는 행복감의 차이는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인 아동의 발달과업(최영임, 장휘숙, 2008)과 가정과 학교에서의 교육적 경험, 사회적 기대와 압력 등의 차이에 기인할 수 있다. 영재학생은 일반 학생과 다르게 발달과업과 교육적 경험뿐 아니라 그들에 대한 가족과 사회의 기대가 다르므로 그들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 행복을 느끼는 요소뿐만 아니라 행복을 느끼는 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유미숙, 차지향, 정계숙, 2013). 영재학생은 일반 학생에 비해 부모의 기대에 대한 불안함, 성공에의 불안감, 학업 스트레스 등을 더 심각하게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영재아동의 인성과 행복, 심리적 안녕감 등의 심리적 구인과의 실증적 증거를 밝힌 연구가 드물다.

한편, 삶의 질과 행복감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생애목표를 들 수 있다. 생애목표는 한 개인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로 각 개인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 속에서 수립되며, 미래 삶의 내용과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재아동이 몰입할 수 있는 적절한 생애목표를 찾는 것은 진로성숙을 위해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만약 적절한 미래 목표를 찾지 못한다면 자아개념과 자아정체성 수립 등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오히려 일반학생과는 다른 심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달적으로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김성수, 2015; 신중호, 진성조, 조은별 2013; Emmons, 1991, 1999; Erikson, 1950).

생애목표는 크게 성공 지향 목표와 삶 지향 목표로 구분하며, 성공 지향목표에는 부, 명예 등의 획득, 삶 지향 목표에는 자기성장, 사회기여, 행복한 가정 영위들을 포함시키고 있다(이현주, 채유정, 2014; 신중호, 서은진, 이은경, 2011). 한편, 김성수와 윤미선(2013)은 Kasser & Ryan(1993, 1996)의 연구를 바탕으로, 외재적 목표와 내재적 목표로 구분하여 외재적 목표는 물질, 명예, 이미지 목표로 물질적 성공, 사회적 명성 등과 같은 외부의 보상, 칭찬, 타인 평가 등을 추구하는 3개의 하위요인으로, 내재적 목표에는 대인관계에서의 행복, 주관적 안녕감, 자기성장 등과 같은 긍정적인 요인에 의미를 두는 성장, 기여, 관계, 건강, 영성목표의 5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생애목표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체로 시험이나 학업과 관련된 연구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성취지향 목표는 학업적 자기개념과 시험불안에 부정적인 영향과 삶 지향 목표는 학업적 자기개념과 학업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중호, 진성조, 2013). 뿐만 아니라 생애목표에 따라 성취목표의 수준도 다르게 나타나 긍정적인 학업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2014). 우리나라 아동은 학업성취는 매우 높으나(Mullis, Martin, Foy, & Arora, 2012), 학업에 대한 동기와 흥미가 부족하여(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심리적 구인으로 아동의 생애목표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김성수, 2014; 문병상, 2009, 2011; 박분희, 김누리, 2012, 신중호 외 2013, 최영미, 송인섭, 2013; Lee, McInerney, Liemc, & Ortiga, 2010). 특히 초등영재교육 시기에 설정한 생애

목표는 현재와 미래의 삶의 방향성과 동기를 제공해 주며,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심리적 갈등을 극복하고 행복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인성, 행복, 주관적 안녕감 같은 심리적 구인과 관련된 생애목표의 선행연구 결과는 내재적 목표는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외재적 목표는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수, 2015). 먼저 성공, 물질, 물질적 가치 등을 추구하는 외재적 목표는 낮은 수준의 안녕감과 높은 스트레스와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으며(Kasser & Ryan, 1996), 삶의 만족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Headey, 2008). 특히 아동기의 심리적 안녕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Cohen & Cohen, 1996; Kasser & Ryan, 1993). 내재적 목표는 사회적 목표라 불리기도 하며(신중호 외 2011), 한 개인이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데 역할을 한다(Bronk, 2008). 내재적 목표는 심리적 건강(Shek, 1993), 삶의 만족감 혹은 행복감(Eigener, 2001), 심리적 안녕감 및 주관적 안녕감(Keyes, Corey, Dov, & Carol, 2002; Shek, 1993), 자아존중감 및 우울(McAdam, 2001) 등과 상관관계를 보인다. 특히, 인간관계와 사회적 기여에 관한 생애목표를 갖고 있는 청소년들은 자기이해, 자기 성장, 자기개념, 정체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중호, 진성조, 2013; Colby & Damon, 1992; Damon, Menon, & Bronk, 2003; Eccles, 2008).

결과적으로 외재적 목표보다 내재적 목표는 자기실현, 활력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반면에 우울과 스트레스의 신체적 증상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Kasser & Ryan, 1996). 이렇게 아동의 긍정적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심리적 안녕감과 행복감은 생애목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결론을 확인하였다(Deci & Ryan, 2000; Heady, 2008). 즉, 내재적 목표는 초등영재학생의 긍정적인 발달과업을 달성하도록 촉진하며, 심리적 안정감과 행복을 향상시키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특히 국가를 이끌어갈 인재개발이 목적인 영재교육은 영재학생 개인의 능력개발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균형적인 조화를 통한 리더십을 함양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들의 인성, 생애목표가 이들의 개인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에 대한 변인간의 관계와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초등영재교육에서 내재적 목표가 학습자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김성수, 2015), 학교현장에서 경쟁중심의 교육 환경보다 개인의 인성, 공동체의 기여, 생애목표를 바탕으로 행복감을 신장시킬 수 있도록 성격발달, 인성교육, 영재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진행된 인성, 생애목표, 행복관련 소수의 국내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목표 유형이 학습과 관련된 자아인식 및 태도 이외에도 개인의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행복 등을 포함하는 개인의 성장과 유의미한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생애목표가 행복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인성이 행복감과 삶의 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밝힌 실증적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과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이들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교육적 지원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인성과 생애목표 유형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면, 생애목표

의 효과에 주목한 기존의 연구들이 학업성취와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 속에서 생애목표를 이해했던 것을 넘어서서 인성과 행복감이라는 사회 정서 발달과의 관계를 보다 포괄적으로 규명하는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초등과학영재교육의 질적 영재교육 프로그램 향상을 위해서 초등과학영재들의 인성과, 생애목표의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이를 통해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영재들의 인성, 생애목표와 같은 심리적 특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논리적 당위성을 제공하며 초등영재를 위한 영재인성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수립함에 있어 보다 풍부한 교육적 함의를 시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은 차이가 있는가?

둘째, 초등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셋째, 초등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의 영향관계는 어떠한가?

3-1. 초등영재학생의 인성이 생애목표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2. 초등영재학생의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3-3. 초등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교육청의 단위학교 영재학생은 지역에 따라 영재성 검사를 치르는 곳도 있지만, 서울특별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는 교사관찰 추천제로 1단계 학교 담임의 추천을 거쳐 2단계 집중관찰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한 후, 3단계 과학분야 창의적 문제해결력 평가를 거쳐서 4단계 인성 및 상호면접을 통해 선발된다.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산하 지역교육지원청 소속 초등학교 3곳의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 중 단위학교 영재학급에서 과학 영재교육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 90명을 초등과학영재학생 집단으로 하였고, 영재학급에 속하지 않는 같은 지역 소속 100명을 일반학생 집단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집단을 대상으로 초등과학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2015년 2학기 영재교육 마지막 회기에 인성검사, 생애목표검사, 행복감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였다.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검사로 약 40분 정도 소요되었다. 검사결과, 성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결과를 제외한 178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분포는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구대상의 집단과 성별에 따라 일반학생 집단은 남학생 41명(45.05%), 여학생 50명(54.95%)의 91명(51.12%)으로 구성되었고, 과학영재학생 집단은 남학생 47명(54%), 여학생 40명(46%)의 87명(48.88%)의 분포로 구성되었다.

<표 1> 연구대상자의 분포

(N=178)

	일반학생(%)	과학영재학생(%)	전체(%)
남자	41(45.05)	47(54.0)	88(49.16)
여자	50(54.95)	40(46.0)	90(50.56)
합계	91(51.12)	87(48.88)	178(100)

초등과학영재의 인지적, 정의적 특징을 일반학생과 비교한 선행연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특징을 요약할 수 있겠다. 초등과학영재학생들은 논리, 수학적 지능과 개인이해 지능이 높은 반면 음악지능이 약점으로 나타났다. 창의성과 정서지능도 일반학생보다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과학탐구능력 또한 전체적으로 높다(백은주, 2005; 조은주, 2005). 성별에 따라 과학영재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악, 공간, 언어, 개인관계 및 개인이해 지능에서 유의미하게 높았다(조은주, 2005). 정의적 특성과 관련해서는 초등과학영재아동은 과학에 대한 태도, 과학의 사회적 의미, 과학교과에 대한 태도, 과학적 태도 등 과학과 관련된 영역에서 일반학생에 비해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고 성별 차는 보이지 않았다. 또한 초등영재아동은 자아존중감 성취동기가 일반학생보다 높았다. 또한 일반학생의 경우 외적 귀인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이들은 내적 귀인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학습양식에 있어서 독립적이고, 협조적이어서, 토론과 같이 비구조화된 유연성이 있는 참여적 학습양식에 선호하는 특징이 있다(박미옥, 2006; 신종호, 서정희, 최재혁, 김용남, 김윤근, 이현주, 2007).

2. 검사도구

가. 초등학생 인성측정 도구

초등 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은림 외(2014)가 개발, 타당화한 인성지수측정도구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초등학생 수준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청소년의 인성지수측정도구로서 사회성, 도덕성, 정서성의 3개의 범주와 그에 따른 사회성의 하위요인인 배려/봉사, 공감 도덕성의 하위요인인 정직/정의, 책임, 윤리, 정서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의 총 6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의 응답범주는 4단계의 Likert 형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1)'에서 '매우 중요함(4)'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인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인성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938의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다. 인성의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사회성 .923, 도덕성 .864, 정서성 .819으로 총 인성전체 .938로 나타났다(<표 2>참조).

<표 2> 인성검사도구 구성요소 및 신뢰도

변인	하위영역	예시문항	문항번호	문항수	Cronbach's α	
사회성	배려/봉사	길을 가다 어려운 사람을 보면 주저 없이 도움을 준다.	1~16	16	.939	.923
	공감	나는 친구가 슬퍼하고 있으면 위로해 준다.	17~23	7	.550	
	정직/정의	나는 숙제를 할 때 친구의 것을 베끼거나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를 그대로 적어서 낸 적이 있다.	24~33	10	.750	.864
도덕성	책임	법을 준수하는 것은 중요하다.	34~40	7	.896	
	윤리	웃어른을 보면 예의를 갖추어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	41~43	3	.812	
	긍정적 자기이해	나는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다.	44~54	11	.919	.819
정서성	자기조절	내가 화가 났을 때,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55~60	6	.565	
	전체		60	60	.938	

나. 생애목표 측정 도구

생애목표를 측정하는 문항은 Kasser와 Ryan(1996), Grouzet, Kasser, Dols, Kim, Ryan, Saunders, Schumuck, & Sheldon, (2005), McInerney, Liem, Ortiga, Lee와 Manzano(2008)의 AI(Aspirations Index)를 참고하여 김성수와 윤미선(2013)이 개발한 생애목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DT의 목표내용이론을 근거로 개발되고 타당화된 것으로 8요인의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성수와 윤미선(2013)가 타당화한 것을 참고하여 영성을 빼고 7요인 28문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내재적 목표의 하위구성요인인 성장, 기여, 관계, 건강, 외재적 목표인 물질, 이미지의 각 개의 하위 요인당 4문항씩 28문항이다. 각문항의 응답범주는 Likert 척도로 ‘전혀 중요하지 않음(1)’에서 ‘매우 중요함(7)’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생애목표 전체 문항의 Cronbach's α 값은 내재적 목표 .813 외재적 목표 .818으로 높은 신뢰도를 보였다.

<표 3> 생애목표 구성요소 및 신뢰도

변인	하위영역	문항 번호	예시문항	문항 수	Cronbach's α
내재적 목표	성장목표	4, 11, 18, 25	남에게 떠밀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선택하여 하는 것	4	.813
	기여목표	5, 2, 19, 26	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4	
	관계목표	6, 13, 20, 27	친구관계가 갈등 없이 늘 친하게 지내는 것	4	
	건강목표	7, 14, 21, 28	아프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것	4	
외재적 목표	물질목표	1, 8, 15, 22	돈을 많이 버는 것	4	.818
	명예목표	2, 9, 16, 23	사람들로부터 유명해지는 것	4	
	이미지목표	3, 10, 17, 24	외모가 예뻐지거나 멋있어지는 것	4	
생애목표 전체				28	

다. 행복감 측정 도구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Seligman(2002)의 AHI(Authentic Happiness Inventory), Myers(1992)의 삶의 만족 척도, Emmons(1999)의 인생의미 분류의 구성요인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외적행복, 내적행복, 자기조절행복으로 영역이 구성된 Argyle(2001)의 행복척도를 변안한 권석만(200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행복의 하위요인으로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외적행복 10문항(예, 나는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주는 편이다.), 내면적 특성과 관련하여 행복을 느끼는 것과 관련된 내적행복 6문항(예, 나는 매우 행복하다.), 스스로 자신의 통제소재를 발휘함으로써 느끼는 행복감인 자기조절행복 5문항(예, 나는 내 시간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다.)으로 총 3영역으로 구성된다. 문항구성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5점)’까지의 5점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행복감의 하위요인별 신뢰도 및 전체 신뢰도인 Cronbach's α 값은 외적행복 척도는 .796이며, 내적행복 척도는 .665, 자기조절 행복 척도는 .834, 전체 행복감 척도는 .798로 나타났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해 수집된 자료는 IBM SPSS(PASW Statistic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초등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집단에 따른 생애목표, 인성, 행복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고, 각각의 독립변인과 그 변인의 하위변인이 종속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인성,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초등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 차이검증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에 있어서 초등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집단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의 집단 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4> 초등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 차이 검증

	일반학생(n=92)		영재학생(n=87)		<i>t</i>	<i>p</i>	
	<i>M</i>	<i>SD</i>	<i>M</i>	<i>SD</i>			
인성	배려봉사	3.28	.62	3.47	.41	-2.07	.040
	공감	3.04	.34	3.15	.45	-1.67	.097
	정직경의	3.28	.40	3.45	.50	-2.15	.034
	책임	3.44	.53	3.70	.36	-3.44**	.001
	윤리	3.50	.55	3.75	.39	-3.09**	.002
	긍정적 자기이해	3.30	.51	3.61	.52	-3.53**	.001
	자기조절	2.68	.41	2.63	.39	.70	.482
내재적 목표	성장목표	6.55	.55	6.34	.82	1.84	.068
	기여목표	5.35	1.72	5.86	1.10	-2.11*	.036
	관계목표	5.96	1.20	6.062	.99	-.55	.585
외재적 목표	건강목표	6.52	.59	6.38	.77	1.21	.230
	물질목표	5.95	1.06	5.12	1.24	4.33***	.000
	명예목표	4.70	1.43	4.57	1.57	.53	.598
	이미지목표	5.18	1.34	4.48	1.48	2.98**	.003
	행복감	4.29	.63	4.40	.60	-1.00	.320

p*<.05, *p*<.01.

<표 5> 초·고·대학영재학생의 인식, 생애목표, 행복감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행복감	1														
2. 배려봉사	.546***	1													
3. 공감	.324***	.720***	1												
4. 정직/정의	.011	.126*	-.087	1											
5. 책임	.393***	.650***	.565***	.269**	1										
6. 윤리	.474***	.545***	.534***	.095	.671***	1									
7. 긍정적 자기이해	.755***	.571***	.452***	.131**	.529***	.551***	1								
8. 자기조절	-.056	.364***	.452***	.072	.313***	.224**	.211**	1							
9. 성장목표	.273**	.511***	.309***	-.127**	.138**	.173**	.187**	.148**	1						
10. 기여목표	.520***	.699***	.508***	-.050	.378***	.357***	.418***	.119*	.803***	1					
11. 관계목표	.423***	.496***	.357***	.036	.240**	.253**	.320***	.220**	.798***	.675***	1				
12. 건강목표	.161*	.302***	.191	.102**	-.014	-.097	.047	.307***	.696***	.529***	.766***	1			
13. 물질목표	-.147*	.092	-.218**	.202*	-.016	-.142**	-.180**	.057	.257**	.151**	.219**	.455***	1		
14. 명예목표	.185*	.210	-.196*	.056	.049	.087	.219**	.027	.344***	.317***	.317***	.289***	.611***	1	
15. 이미지목표	.186*	.195	-.139	.118*	-.026	.005	.068	.006	.338***	.271**	.385***	.344***	.561***	.782***	1

* $p < .05$, ** $p < .01$, *** $p < .001$

각 변수에 있어서 집단에 따른 평균의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인성의 하위요인인 책임($t=-3.44, p<.01$), 윤리($t=-3.09, p<.01$), 긍정적 자기이해($t=-3.5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인성 하위요인인 책임, 윤리, 긍정적 자기이해의 모든 요인에서 초등영재아동($M=3.70, M=3.75, M=3.61$)이 일반아동($M=3.44, M=3.50, M=3.30$)보다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생애목표 중 내재적 목표의 기여목표($t=-2.11, p<.05$), 외재적 목표에서 물질목표($t=4.33, p<.000$)와 이미지목표($t=2.98, p<.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내재적 목표인 기여목표에서 초등과학영재학생($M=5.86$)이 일반학생($M=5.35$) 보다 높은 기여목표를 가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외재적 목표인 물질목표와 이미지목표에서는 일반학생($M=5.95, M=5.18$)이 초등과학영재학생($M=5.12, M=4.4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행복감에는 두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과의 상관 계수와 각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표 5>를 살펴보면 각 변인들의 유의한 상관계수는 .118에서 .803로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인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적 자기이해의 상관계수가 $r=.755(p<.001)$ 로 가장 높게 행복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성 하위요인인 배려/봉사($r=.546, p<.001$), 생애목표의 내재적 목표인 기여목표($r=.520, p<.001$), 인성의 윤리($r=.474, p<.001$), 관계목표($r=.423, p<.001$)의 순으로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성의 하위요인인 정직/정의($r=.011, p>.05$)과 자기조절($r=-.0563, p>.05$)은 행복감과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의 영향관계 탐색

가.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이 생애목표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이 생애목표에 미치는 영향과 인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인성을 독립변인으로 생애목표 중 내재적 목표와 외재적 목표를 종속변인으로 각각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인성을 독립변인으로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의 값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 '1'을 넘지 않았고, VIF에서 1.076에서 2.745로 절댓값 '3' 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음의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독립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의 하위요인이 생애목표(내재적 목표, 외재적 목표)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6>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이 생애목표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목표		외재적 목표		행복감	
	β	t	β	t	β	t
배려/봉사	.743	4.646***	.582	3.301***	.380	3.043***
공감	.050	.327	.578	-3.397***	-.154	-1.257
정직/정의	-.036	-.337	.075	.632	-.107	-1.297
책임	-.176	-1.052	.067	-.363	-.077	-.646
윤리	-.136	-.873	.026	-.153	.107	.964
긍정적 자기이해	.054	.411	.008	.008	.659	6.753***
자기조절	-.072	-.072	.004	-.004	-.255	-3.011***
$F_{값}$	$F(7, 69)=5.362^{***}$		$F(7, 67)=2.840^{***}$		$F(7, 63)=17.609^{***}$	
R^2	.461		.243		.688	

* $p < .05$, ** $p < .01$, *** $p < .001$

<표 6>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초등과학영재학생의 내재적 목표는 인성에 의해 46.1% 설명되었고($F(7, 69)=5.362, p<.001$), 외재적 목표는 24.3% 설명되었다($F(7, 27)=2.840, p<.001$). 그리고 행복감은 인성에 의해 68.8% 설명되어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여준다($F(7, 89)=17.609, p<.001$).

내재적 목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성의 하위요인인 배려/봉사로 나타났다. 배려/봉사($t=4.646, p<.001$)의 인성특성이 높을수록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외재적 목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려/봉사($t=3.301, p<.001$), 공감($t=-3.397, p<.001$)로 나타났다. 즉, 배려/봉사의 인성이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공감 수준이 낮을수록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배려/봉사는 외, 내재적 목표 모두에게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공감에 있어서는 타인에 대해 공감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물질, 명예, 이미지 목표와 같은 외재적 목표를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행복감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성의 하위요인은 배려/봉사($t=3.043, p<.001$), 긍정적 자기이해($t=6.753, p<.001$), 자기조절($t=-3.011, p<.001$)로 나타났다. 즉, 배려/봉사와 긍정적 자기이해의 수준이 높을수록 정적인 행복감을 보이는 반면, 자기조절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생애목표의 하위요인을 독립변인으로 행복감을 종속변인으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의 값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 '1'을 넘지 않았고, VIF에서 .348에서 1.645로 절댓값 '2' 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다음의 다중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임을 예견할 수 있으며, 독립 변인들 간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생애목표의 하위요인(성장, 기여, 관계, 건강, 물질, 명예, 이미지)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7>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인	독립변인	표준화계수		β	t	$F(7, 63)$	R^2	
		B	표준오차					
행복감	성장목표	-.461	.143	-.659	-3.229***	7.692	.490	
	내재적 목표	기여목표	.385	.088	.722			4.391***
		관계목표	.303	.115	.515			2.629***
		건강목표	-.074	.137	-.096			-.543
	외재적 목표	물질목표	-.141	.066	-.307			-2.145***
		명예목표	.063	.066	.162			.952
		이미지목표	.037	.063	.093			.579

* $p < .05$, ** $p < .01$, *** $p < .001$

<표 7>에 나타난 것과 같이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행복감은 생애목표에 의해 49% 설명되었다($F(7, 63)=7.692, p<.001$).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요인은 내재적 목표의 하위요인인 성장목표($t=-3.229, p<.001$), 기여목표($t=4.391, p<.001$), 관계목표($t=2.629, p<.001$)와 외재적 목표의 하위요인인 물질목표($t=-2.145, p<.001$)이다. 초등과학영재학생의 내재적 목표인 기여목표, 관계목표는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내재적 목표 중 성장목표와 외재적 목표인 물질목표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탐색

먼저,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가 행복감의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의 값을 살펴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 ‘1’을 넘지 않았고, VIF에서 1.231에서 2.906으로 나타났으며, Durbin-Watson 계수도 2.466로 잔차 간에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계적 회귀분석에 투입되는 독립변인들은 상호 독립적임을 예견하며, 독립 변인들 간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행복감에 대한 각 변수들의 설명력, 영향력이 어떠한지에 대한 회귀모형을 도출하기 위해 각 변수별 하위요인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를 독립변수로 행복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회귀 분석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모형1에서는 가장 먼저 투입된 인성변인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것으로 인성의 하위요인 중 배려/봉사($\beta=.380, p<.01$)와 긍정적 자기이해($\beta=.659, p<.001$), 자기조절($\beta=-.255, p<.01$)이 유의미한 변인으로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2는 모형1에 생애목표를 추가한 것으로 인성의 하위요인인 배려/봉사, 공감, 정직/정의, 윤리,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과 생애목표의 하위요인인 내재적 목표의 성장목표, 기여목표, 건강목표, 외재적 목표인 명예목표, 이미지 목표가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표 8> 초등 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

	모형1			모형2		
	B(se)	β	t	B(se)	β	t
상수	1.733(.636)		2.726*	1.855(.745)		2.488*
배려/봉사	.614(.202)	.380	3.043**	.659(.218)	.408	3.026**
공감	-.240(.191)	-.154	-1.257	-.695(.200)	-.446	-3.479**
정직/정의	-.124(.094)	-.107	-1.297	-.267(.089)	-.231	-2.992**
책임	-.133(.205)	-.077	-.646	-.008(.183)	-.005	-.043
윤리	.195(.203)	.105	.964	.389(.183)	.208	2.129*
긍정적 자기이해	.745(.110)	.659	6.753***	.705(.109)	.624	6.443***
자기조절	-.445(.148)	-.255	-3.011**	-.436(.143)	-.249	-3.051**
성장목표				-.335(.106)	-.479	-3.170**
기여목표				.166(.075)	.312	2.211*
관계목표				.069(.086)	.117	.802
건강목표				.277(.113)	.358	2.450*
물질목표				-.069(.048)	-.150	-1.219
명예목표				-.123(.052)	-.319	-2.388*
이미지목표				.106(.044)	.272	2.437*
F		17.609***			4.516***	
R ²		.634			.756	
ΔR^2		.634			.122	
DW			2.466			

* $p < .05$, ** $p < .01$, *** $p < .001$

모형2 결과를 토대로 자세히 설명하자면, 초등과학영재학생은 인성의 하위요인인 배려/봉사($\beta = .408, p < .01$), 윤리($\beta = .208, p < .05$)와, 긍정적 자기이해($\beta = .624, p < .001$)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 생애목표 중 기여목표($\beta = .312, p < .05$)와 건강목표($\beta = .358, p < .05$), 이미지 목표($\beta = .272, p < .05$)를 가질수록 행복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인성의 하위요인인 공감($\beta = -.446, p < .01$), 정직/정의($\beta = -.231, p < .05$), 자기조절($\beta = -.249, p < .05$)의 수준이 높을수록 또, 생애목표 중 성장목표($\beta = -.479, p < .01$)와 명예목표($\beta = -.319, p < .05$)를 가질수록 행복감은 낮다고 해석할 수 있다. 모형2를 중심으로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개별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보면 인성 중 긍정적 자기이해($\beta = .624, p < .001$), 공감($\beta = -.446, p < .01$), 배려/봉사($\beta = .408, p < .01$), 자기조절($\beta = -.249, p < .01$), 정직/정의($\beta = -.231, p < .01$), 윤리($\beta = .208, p < .05$) 순으로 영향을 주었고, 생애목표 중 성장목표($\beta = -.479, p < .01$), 건강목표($\beta = .358, p < .05$), 명예목표($\beta = -.319, p < .05$)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감과 윤리는 행복감을 설명하는 유의하지 않은 설명변수이나 생애목표 요인이 투입되면서 유의한 설명변수가 되었다.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들의 설명력을 살펴보면, 모형1의 인성변인을 투입했을 때는 63.4%의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형2에서 생애목표 변인을 투입했을

때는 75.6%의 설명력을 보여 12.2% 증가된 설명력을 보였다. 즉,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독립변인이 행복감을 설명하는 가장 높은 변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초등과학영재학생의 교육이 인지적인 측면에 치중되어 온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들의 정의적인 측면인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 특성을 파악하고, 각 변인간의 관련성을 살펴 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초등 영재들의 행복감을 높이고, 동시에 이들에게 요구되는 품성을 개발하는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초등영재의 인성, 생애목표의 정의적 특성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각 변인이 초등영재의 행복감에 어떠한 설명력과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은 일반학생보다 인성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책임, 윤리, 긍정적 자기이해를 나타냈다. 또, 초등과학영재학생은 일반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내재적 목표의 하위목표인 기여목표를 보였다. 반면, 물질목표와 이미지목표에서 있어서는 일반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은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둘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 생애목표와 행복감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복감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요소로 인성의 하위요소인 긍정적 자기이해가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배려/봉사, 내재적 목표인 기여목표, 윤리, 관계목표 순으로 정적 상관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인성의 하위요인인 정직/정의와 자기조절은 행복감과 상관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의 내재적 목표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인성 요인은 배려/봉사이고, 외재적 목표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배려/봉사, 공감이었다. 또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배려/봉사, 긍정적 자기이해, 자기조절 요인이었다. 즉, 배려/봉사가 높을수록 내, 외재적 목표 모두에 영향을 주었다. 공감은 낮을수록 외재적 목표를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배려/봉사, 긍정적 자기이해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은 낮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생애목표는 성장목표, 기여목표, 관계목표의 주로 내재적 목표와 물질목표였다. 초등과학영재학생은 내재적 목표인 기여목표, 관계목표는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성장목표와 물질목표는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행복감에 미치는 인성, 생애목표의 상대적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인성이 생애목표보다 행복감을 보다 더 설명하는 독립변인이었다. 긍정적 자기이해, 건강목표, 기여목표가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성장목표, 정직/정의, 공감 순으로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공감과 윤리는 행복감을 설명하지 않는 설명변수이나 생애목표 요인이 투입되면서 유의한 설명변수가 됨으로써 공감, 윤리와 행복감을 생애목표 요인이 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 윤리, 긍정적 자기이해의 인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영재학생들이 높은 과제집착력, 독립성, 자기 인식(Davis & Rimm, 2004)의 정서적 특성과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다. 즉, 이들은 과제를 끝까지 해내는 과제집착력이 있는 만큼 책임감과 자기 인식능력이 높은 만큼 긍정적 자기이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이들은 자발성, 민감성, 풍부한 정서, 리더십, 도덕 판단력, 자아통제력 등이 일반학생보다 높았다는 선행연구의 결과(문용린, 김일, 2009)로부터 윤리와 긍정적 자기이해력이 높은 본 연구의 결과는 연장선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감 요인에서는 집단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초등영재아동의 공감능력이 일반학생보다 높다는 결과(조태원, 2015)와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한편, 초등영재학생은 일반학생보다 높은 기여목표를, 낮은 물질목표를 나타내는 결과는 선행연구와 상통한 결과이다(신중호 이선영, 김명섭, 이신행, 2015, 이운소, 2014). 그러나 일반학생의 이미지목표가 초등영재학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것은 선행연구의 결과(신중호 외, 2015)와 상반된 결과였다. 대체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영재아동은 내재적 목표에 의해 동기화된다는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Amabile, 1983).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미 영재교육과정 속에 영재교육의 목적이 사회의 기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추론할 수 있겠다. 그러나 행복감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은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과학영재학생은 일반학생에 비해 행복감이 보다 높은 수준임을 나타냈던 선행연구(우민향, 2013)와는 다소 다른 결과이다.

둘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은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이해와 배려/봉사, 윤리의 인성, 생애목표 중 사회적 기여목표와 타인과의 관계목표가 행복감과 정적인 상관을 가진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영재아동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이 결국 영재 자신에게만 도움이 된다는 선행연구결과(Davis, Rimm, & Siegle, 2011)에 배치되는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영재들의 사회적 소통과 성장을 강조(Csikszentmihalyi, 1988; Gardner, 2008; Sawyer, 2006; Sternberg, 2005; 이경화, 태진미, 2013; 태진미, 2011)하는 것과 더불어 영재학생의 행복감과도 높은 상관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이해, 배려/봉사, 윤리 등의 인성과 기여, 관계목표를 가지는 것이 학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영재아동의 학부모와 학교교육에 주는 함의는 영재교육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이며, 긍정적 이해, 배려/봉사, 윤리 등의 인성과 기여, 관계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영재아동의 수월성 교육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인성과 생애목표는 행복추구를 위한 초등영재학생의 삶의 방향성과 동기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은 인성요인 중 배려/봉사의 특성이 높은 학생이 내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배려/봉사가 높을수록, 공감이 낮을수록 외재적 목표를 가지는 경향을 보였다. 배려/봉사의 도덕행동은 개인 내적 동기뿐 아니라, 타인에게 칭찬과 평판이라는 외재적 동기도 만족시키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하는 수준이 낮은

영재학생들일수록 사회 및 타인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물질, 명예, 이미지와 같은 외재적 목표를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로부터 타인에 대한 공감하는 능력은 영재교육이 외재적 목표에 치우치는 교육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중요한 영재 인성교육의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인성의 배려/봉사, 긍정적 자기이해가 높을수록, 자기조절은 낮을수록 높은 행복감을 보이는 결과로부터 영재아동의 심리적 지원과 영재교육을 위한 함의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배려/봉사는 내재적, 외재적 목표뿐만 아니라,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특히 영재학생의 자기조절은 완벽주의 성향의 일환으로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높은 기준을 부여하여 주변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는 것(박지윤, 권치순, 2013)의 일종으로 높은 성취동기 등의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본인 자신의 행복감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긍정적 자기이해와 적절한 자기조절에 대한 상담이나 인성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추후 영재아동의 행복함양을 위한 심리적 지원과 상담 프로그램 계획에 기초적 자료를 제공할 것이다.

넷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은 기어목표, 관계목표를 가질수록 행복감이 높고, 성장목표와 외재적 목표인 물질목표를 가질수록 행복감이 낮은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목표가 개인에게는 사회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동시에 사회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Shin, Hwang, Cho, & Alexande, 2014; 신종호 외 2015; Kasser & Ryan, 1996)의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현재까지의 영재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학습과 창의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능력개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와 타인과 더불어 사는 개인의 행복감을 추구하는 영재교육의 의미를 탐색하고 지속적으로 동기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초등과학영재학생의 인성은 행복감을 느끼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영재교육에서 인성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필요조건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인성은 사회적 책임성 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초등영재학생의 행복감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긍정적 자기이해, 윤리 요소로 나타났으나, 공감, 정의/정의, 자기조절은 행복감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이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초등영재학생들에게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는 과정은 타인의 긍정정서뿐 아니라 부정정서까지 공감하게 됨으로써 자신의 행복감에도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또한 철저한 정의/정직, 자기조절능력의 요구는 행복에 부적인 영향을 줌으로 인성과 행복교육에서 지나치게 강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생애목표에 관해서는 초등영재학생들이 성장목표추구에서 벗어나 건강목표, 기어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안내함으로써 자신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바탕으로 사회 속에서 기여를 다할 수 있도록 생애목표 설정을 지도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공감과 윤리는 그 자체로는 행복감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생애목표의 매개효과를 통해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목표가 공감과 윤리에 영향을 주는 경로 과정은 확인되지 못했으나, 공감과 윤리는 생애목표와 행복감 모두에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음을 함의한다. 따라서 공감과 윤리를 교육함에 있어서 개인의 생애목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창의적이고 인지적 요소뿐 아니라 도덕적이고 정의적인 요소의 조화로운 교육이

요구되는 초등영재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생애목표, 행복감의 일반학생과 차이를 분석하고, 인성, 생애목표가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상대적인 영향관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부터 도출한 가장 큰 시사점은 초등과학영재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인성요인이라는 것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성에서 긍정적 자기이해, 윤리, 배려/봉사가 높을수록, 공감, 정직/정의, 자기조절이 낮을수록, 생애목표에서 기여목표, 관계목표를 가질수록, 성장목표가 낮을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영재아동에게 부과되는 과제들에서 경쟁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남과의 비교를 통해 성취와 성공 등 외적 가치를 추구하는 현상을 야기하는 우리의 영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성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문제적 현상의 대안을 구안하는데 있어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는 결과이다. 특히, 윤리, 배려/봉사, 기여목표가 행복감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사실로부터 영재교육이 개인의 잠재적 능력 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에 대한 기여의 목표를 가질 때 개인의 행복감도 높아지는 상호호혜적인 관계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초등영재교육에 있어 그들의 행복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성의 하위요인별 영향관계 탐색을 바탕으로 인성교육에서 인성함양을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법과 생애목표 등 가치관교육이 병행된 영재교육프로그램 구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초등영재인성교육 프로그램에서 배려/봉사의 경우 생애목표를 확립하는 과정이 구성요소로서 포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발달 시기상의 요구와 필요를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상담, 진로, 인성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밝히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초등과학영재학생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변인으로 아동기 학생의 심리적 구인으로 인성과 생애목표를 설정하였다. 행복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인성, 생애목표변인의 영향력만을 밝혀 초등영재 개인내적 다양한 심리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 등에 대한 구조적 관계에 대해 포괄적으로 살피지 못한 한계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초등과학영재 학생 집단과 일반학생 집단의 다른 변인들의 차이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지역교육청 소속 영재교육담당 학교에서 선발하는 과정을 통해 선별되었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다른 가정, 학교,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들은 모두 자기보고식 검사를 활용하였다. 특히 인성을 측정하는 도구에서 학생들의 자기보고식 측정된 결과는 인성의 실제행동을 예측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넷째, 인성, 생애목표, 심리특성 요인, 사회요인, 관계요인 등이 초등과학영재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행복감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종단적 연구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민지 (2010). **중학교 영재교육원의 인성교육 현황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발전방향 탐색**.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접근**. 서울: 창지사.
- 교육인적자원부 (2002).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 교육기술과학부 (2012). **인성교육비전 보고서**.
- 교육부 (2013) **인성지수개발연구**.
- 김명숙, 정대련, 이종희 (2003). 과학영재와 일반아의 창의적 사고, 인성, 환경과 과학영역의 창의적 수행에서의 성차, **아동학회지**, 24(3), 1266-1688.
- 김미숙, 김종민 (2013). **21세기 글로벌 교육개혁 동향 분석 연구(I): 행복교육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성수 (2015). 기본심리욕구, 생애목표, 심리적 안녕감 및 우울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9(1). 1-25.
- 김성수 (2014). 부모의 자율성지지, 생애목표 및 성취목표 간의 구조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5(3). 29-52.
- 김성수, 윤미선 (2013). SDT의 목표내용이론에 기반한 청소년용 생애목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교육학연구**, 51(4). 87-117.
- 김성일, 윤미선, 소연희 (2008). 한국 학생의 학업에 대한 흥미: 실태, 진단 및 처방.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s), 187-221.
- 김신영 (2007).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요약집.
- 김언주 (1998). 영재아의 심리적 특성 및 가정환경 특성. **경기도과학회지**. 104, 31-56.
- 김영미, 한기순 (2008). 영재들은 행복한가?: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 비교. **영재교육연구**, 18(3), 519-542.
- 김종백, 김태은 (2008). 학교행복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2(1). 259-279.
- 김현정 (2015). **초등과학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성취목표동기와 창의적 인성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문병상 (2009). 인식론적 신념, 성취목표지향성, 자기조절학습 및 학업성취간의 관계, **초등교육연구** 22(4), 49-68.
- 문병상 (2011). 내외적 미래 목표, 과제 도구성 지각과 자기조절학습전략의 구조적 관계분석, **교육심리학연구**, 25(2), 219-234.
- 문용린, 김일 (2009). **영재의 도덕성 향상을 위한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서울대학교 도덕심리연구실, 부산광역시 영재교육진흥원.
- 민중서툼편집부 (2010). **민중실용국어사전**, 서울: 민중서툼
- 박미옥 (2006).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비교**, 석사학위논문. 춘천교육대학교.
- 박분희, 김누리 (2012). 과학영재의 미래목표, 성취목표지향성과 자기조절학습과의 관계. **영재와 영재교육**, 11(1). 73-96.
- 박영태 (2002). 창의적 인성 프로그램 개발, **지방교육경영** 7, 235-264.
- 박지윤, 권치순, (2013). 초등영재와 일반학생의 완벽주의 성향과 대인관계 특성 비교. **한국지**

구과학교육연구. 6(3). 196-206.

- 배성철 (2012). **부모의 내, 외통제성이 초등과학영재의 창의적 사고, 창의적 인성, 자기 주도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부산교육대학교.
- 백은주 (2005).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정서지능과 과학태도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신종호, 서은진, 이은경 (2011). 생애목표검사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25(2), 255-276.
- 신종호, 서정희, 최재혁, 김용남, 김윤근, 이현주 (2007). 사고유형에 따른 영재아동과 일반아동의 학습선호활동의 차이연구. **초등과학교육** 25(5)
- 신종호, 진성조 (2013). 생애목표유형이 학업적 자기개념, 학업노력, 시험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취수준에 따른 차이 검증, **교육심리**, 27(1), 161-180.
- 신종호, 진성조, 조은별 (2013). 지각된 부모의 양육특성이 물질적, 사회적 목표를 매개로 학업 자기개념 및 입시부담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중단연구 학술대회**, 529-555. 11월 27일.
- 신종호, 이선영, 김명섭, 이신형 (2015). 발명영재의 생애목표 특성. **영재와 영재교육**. 14(1). 163-180.
- 우민향 (2013). **초등과학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학습몰입과 행복감의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유미숙, 차지향, 정계숙 (2013). 아동 및 청소년의 행복에 대한 자녀와 어머니의 인식 연구. **인간발달연구**, 20(4). 81-104.
- 윤미정 (2013). **초등학교 영재교육기관의 인성교육 실태 및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경화, 태진미 (2013). 영재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초등 영재학생들의 창의성과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영재와 영재교육**. 12(2). 53-74.
- 이규순 (2000). **초등학생의 스트레스가 학습동기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근철 (1996), **초등학교 도덕·인성교육의 발전방향**, 경인초등도덕교육학회
- 이기범 (2009). 한국의 교육문화와 아동의 행복감.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51-65.
- 이윤소 (2014).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인성교육 경험과 사회적 책임성 및 기부 의식 간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이현정 (2010). **초등과학영재와 일반아동의 도덕 판단력 발달 비교**.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이현주, 채유정 (2014). 청소년 체험활동 참여, 사회·정서, 생애목표의 수준 및 구조적 관계에서의 성차, **한국청소년연구** 25(2), 173-207.
- 임자성, 채규만 (2003). 초등학생의 과외학습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적 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0(3), 295-311.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47(3),

103-118.

- 정계숙, 최은아, 강인설 (2008). 아동의 행복상황 및 판단에 대한 조사연구: 문화적 특수성 접근. **아동학회지**, 29(6), 207-223.
- 조연순 (2008). 인성교육 :변화하는 아동 특성을 고려하는가? **교육정책포럼**, 183, 9-13. 한국교육개발원.
- 조은주 (2005). **초등과학영재의 인지적정의적 특성 분석**.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태원 (2015). **초등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공감능력 비교분석**. 석사학위논문. 대구교육대학교.
- 지은림, 이운선, 도승이 (2014). 인성측정도구개발 및 타당화. 35, **윤리교육연구**, 151-175.
- 최순종, 현정수 (2011). 청소년의 행복에 관한 척도 개발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27, 180-207.
- 최영미, 송인섭 (2013). 대학생의 미래지향목표, 근접학위목표, 과제도 구성지각 및 자기조절 전략 간의 구조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7(1), 77-98.
- 최영임, 장휘숙 (2008) **아동기의 발달과업이 청소년의 행복과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영향**. 2008년도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자료집, 62-63.
- 하종덕, 송경애 (2005). 과학영재의 스트레스, 완벽성, 낙관성과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한 연구. **영재교육연구** 14(1) 47-64.
- 한국교육학회 (1998) **인성교육**. 문음사.
- 한기순, 김영미 (2008). 영재들은 행복한가?: 영재, 잠재적 영재, 일반학생의 행복관련 정서적 특성비교. **영재교육연구**, 18(3), 519-542
- 태진미 (2011). 창의적 융합인재양성. 왜 예술교육에 주목하는가? **영재교육연구**, 21(4), 1011-1032.
- Amabile, T. M. (1983). The social psychology of creativity: A componential conceptualiz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357-376.
- Argyle (2001/2005). *Happy Psychology*. 행복심리학. 김동기역. 서울: 학지사.
- Bronk, K. C. (2008). Early Adolescents' Conceptions of The Goal Life and The Good Person. *Adolescence*, 43(172). 713-732.
- Burckhardt, C. S. (1985). The impact of arthritis on quality of life, *Nursing Research*, 34, 11-16.
- Cohen, P., & Cohen, J. (1996). *Life values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Malewas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Colby, A, & Damon, W. (1992). *Some do care Contemporary lives of moral comminant*. New York: Free Press.
- Csikszentmihalyi, M. (1998). Society, culture, and person: A systems view of creativity. In R. J. Sternberg(Ed), *The nature of creativity: Current psychological perspectives* (pp. 325-339).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mon, W., Menon, J., & Bronk, K. C. (2003). The development of purpose during adolescence.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7(3), 119-128.

- Davis, G. A., & Rimm, S. B. (2004).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5th ed.)*.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Davis, G. A, Rimm, S. B., & Siegle, D. B (2011).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6th Edition)*. Edinburgh Gate Harlow: Pearson Education Limited.
-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 227-268.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E.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 276-302.
- Eigner, S (2001). The relationship between “protecting the environment” as a dominant life goal and subjective well-being. In P. Schmuck & K. M. Sheldon, *Life Goals and Well-Being Towards a Positive Psychology of Human Striving*. GÖttingen: Hogrefe.
- Emmons, R. A. (1991). Personal strivings, daily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59, 1040-1048.
- Emmons, R. A. (1999). *The psychology of ultimate concerns: Motivation and spirituality in personality*. New York: Guilford.
- Erikson, E. (1950). *Childhood and society* (1st ed.). New York: Norton.
- Gardner, H. (2008). **미래 마인드**. 김한영 역, 서울: 채인(2007)
- Grouzet, F. M. E., Kasser, T., Ahuvia, A., Dols, J. M., Kim, Y., Lau, S., Ryan, R. M., Saunders, S., Schumuck, P., & Sheldon, K. (2005). The structure of goals across 15 cult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5). 811-816.
- Headey, B. W. (2008). Life goals matter to happiness: A revision of set-point theory. *Social Indicators Research*, 86, 213-231.
- Heady, B., R. Veenhoven, and A. Wearing. 1991. Top-down versus bottom-up theories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81-100.
- Kasser, T., & Ryan, R. M. (1993). A dark side of the American dream: Correlates of financial success as a central life aspiration. *Journal of Personal and Social Psychology*, 65, 410-422.
- Kasser, T., & Ryan, R. M. (1996). Further examining the American dream: Differential correlates of intrinsic and extrinsic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3), 280-287.
- Keyes, Corey L. M., Dov Shmotkin, & Carol D. Ryff. (2002). Optimizing Well-Being: The Empirical Encounter of Two Trad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 1007-1022.
- Lee, J. Q., McInerney, D. M., Liem, G. A. D., & Ortiga, Y. P.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future goals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s: An intrinsic-extrinsic motivation perspectiv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35(4), 264-279.
- Lickona, T., & Davidson, M. (2005), *Smart and good high schools: Integrating excellence and ethics for success in school, work, and beyond*. Washington, D. C.: Character Education Partnership
- Lyubomirsky, S. (2007). *The bow of happiness*. New York: The Penguin Press.

- McInerney, D.M., Liem, A.D., Ortiga, Y. P. Lee, J.Q., & Manzano, A.A. (2008). Future goals and self-regulated learning among Singaporean Chienese students. In O. S. TAN, D. M. McInerney, A. D. Liem, & A.G.Tan(Eds.), *What the West can learn from the East; Asian perspectives of the psychology of learning and motivation* (pp.267-293). Greenwich, CT: Information Age Publishing.
- Martin, P. (2005). *Making happy people*. London: Fourth Estate.
- Mullis, I. V. S., Martin, M. O., Foy, P., & Arora, A. (2012). *TIMSS 2011 international results in mathematics*. Chestnut Hill, MA: TIMSS & PIRLS International Study Center, Boston College.
- Myers, D. M. (1992). *The pursuit of happiness: Who is happy and why?* New York : Avon Books.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handbook and classific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Ryan, R. M., & Deci, E. L. (2001).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emonics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41-166.
- Sawyer, R, K. (2006). *Explaining creativity: The science of human innov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eligman, M. E. P.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Free Press. 김인자 역(2006). 긍정심리학. 경기: 물푸레
- Seligman, M. E. P.,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in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 410-421.
- Seligman, M. E. P. (2011). *Flourish: A visionary new understanding of happiness and well-being*. New York : Free Press.
- Shek, Daniel. T. L (1993). The Chinese version of the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Its relationship to different measur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49(3), 349-358.
- Shin, J., Hwang, H., Cho, E. & Alexander M.D. (2014). Current Trends in Korean Adolescents' Social Purpose. *Journal of Youth Development*, 9(2), 16-33.
- Shin, D. C. & Johnson, D. M. (1978). Avowed happiness as an overall assessment of the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5, 475-429.
- Sternberg, R. J. (2005). The WICS model of Giftedness. In R. J. Sternberg & J. E. Davidson (Eds.) *Conceptions of Giftedness* (2nd ed.) (pp. 327-342).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A study to Explore the Effect Relationship of Character and Life Goal on Happiness for Gifted Elementary Students in Science

Heesun Ch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or gifted elementary students in science the feature of character, life goals and happiness, and the effect relationship on happiness ba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actors. For this, independent t-test, multi-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ere conducted. The result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show higher level of responsibility, ethics, positive self-understanding and contribution goal, but lower in material and image goal than general students. Second, character, life goal and happiness are correlated. Third, female students rather than male students and students with consideration/service character have intrinsic goals. While, the students with higher level of consideration/service and lower level of sympathy show extrinsic goals. The higher the level of consideration/service and the lower of self-control they have the higher their happiness are. Fourth, as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have more consideration and relationship goal, their happiness go up. While, the more they have self-growth and material goal, the lower the happiness. Fifth, the character of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is the factor that explains the effect on happiness more easily than life goal, relatively. The factor of life goal mediates the consideration/service and happiness. In conclusion, I hope that this study contribute to raise the happiness of scientifically gifted elementary students, and considerate the character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 for character development.

Key Words: gifted elementary students in science, general students, character, life Goals, happiness

1차 원고접수:	2016년	2월	16일
수정원고접수:	2016년	3월	25일
최종게재결정:	2016년	3월	29일